21-12(통권 908호) 2021.05.07

경제주평

■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과 시사점

- 기대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세계 경제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과 시사점

- 기대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세계 경제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 2

3. 시사점 ····· 12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제연구실 : 이부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오준범 연 구 위 원 (2072-6247,jboh19@hri.co.kr)외 2명

Executive Summary

□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과 시사점

- 기대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세계 경제

■ **개요**

세계 경제는 코로나 19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경기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산업생산 및 세계 교역 모두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되는 등 경기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데 이어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향후 경기 회복세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주요국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① 미국 : 강한 경기 반등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주요 경제 지표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으로 향후 경기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연율 6.4%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코로나19 이전 실질 GDP 규모 수준에 근접하였다. 또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코로나19 백신 도입 확대 및 정부의 개인 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소매판매와 소비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ISM 경기지수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급락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제조업 및 비제조업 모두 60p를 상회, 산업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민간투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에도 미국 경제는 경기부양책 및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 등을 바탕으로 빠른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및 정책 당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 전환 시기 관련 이슈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유로존 : 경기 회복 지연

유로존은 경기 침체가 지속 중이나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표 등이 개선되면서 향후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5분기 연속 하락 추세를 지속하면서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20년 2분기 이후 GDP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주요국 중 프랑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반등하며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악화되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1%대를 회복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며 개선되고 있다. 경제 지표의 개선세와 더불어 OECD 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또한 모두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유로존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③ 일본 : 경기 재침체 우려 상존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2분기 코로나19 충격으로 급격히 악화된 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실물 및 심리 지표의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으로 경기 재침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크게 하락했던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태도지수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진한 모습니다. 산업생산 및 수출 증가율, 그리고 법인기업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선행지수는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디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제기되는 등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

④ 중국 : 경기 회복세 가속

중국 경제는 최근 빠른 회복세로 진입하였고 코로나19 충격에서도 벗어나고 있으나,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2021년 1분기 중국 경제는 소비 부문 개선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률 반등은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소비 부분 확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수출 등 실물 지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향후 경기 방향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와 제조업PMI도 개선세를 지속함에 따라 앞으로도 경기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의 기업부채, 그림자 금융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된다는 점이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인도 : 경기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경기부양책 도입 및 봉쇄조치 완화로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2020년 4분기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0.4%로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20년 1분기(3.0%) 이후 3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도입 및 봉쇄조치 완화 등으로 민간소비 및 생산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악화되며 경기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⑥ 베트남 : 견조한 성장 지속

베트남은 제조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베트남 경제성장률(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되었던 2020년 2분기 1.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분기 4.5%까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소매판매 증가율이 2020년 9월 플러스 반등한 이후 최근 10.0%까지 상승폭이 확대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산업생산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

■ 시사점

최근 주요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보급 격차에 의한 경기 회복세 차별화, 인플레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성 부상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세계 경제 및 글로벌 교역 개선세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투자와 고용에 있어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별 경기 회복 디커플링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하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은 물론 갑작스러운 글로벌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의 국내 전이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

1. 개요

○ **세계 경제는 코로나 19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

- **선진국의 산업생산 및 세계 교역 모두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되는 등 경기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
  -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상반기 하락세를 지속했던 선진국의 산업생산은 2020년 7월 이후 상승 추세를 지속
  - · 2020년 6월 -21.1%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위축되었던 세계 교역 증가율 또한 최근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

-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데 이어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향후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담당자들의 향후 경기 전망(PMI)은 2020년 하반기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모두 회복
  - · 특히 최근 글로벌 PMI 상승 추세가 강화되면서 향후 세계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

○ **본 보고서는 주요 글로벌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선진국 산업생산 및 글로벌 교역 증감률 동향 >

자료 : OECD, IMF.
주1) 교역 = 수출 + 수입.
2) 증감률은 3개월 이동평균.

< 글로벌 PMI 동향 >

자료 : Bloomberg.

2.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① 미국 : 강한 경기 반등

○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 영향으로 주요 경제 지표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으로 향후 경기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연율 6.4%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코로나19 이전 실질 GDP 규모 수준에 근접**
  - 정부의 코로나19發 위기 대응 대규모 경기부양책 도입으로 정부 투자 및 지출의 기여도는 2020년 4분기 - 0.14%p에서 2021년 1분기 1.12%p로 상승
  - 또한,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2020년 4분기 1.58%p에서 2021년 1분기 7.02%p로 상승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

-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코로나19 백신 도입 확대 및 정부의 개인 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소매판매와 소비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
  - 실업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4월 14.8%까지 급등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1년 4월 현재 6.0% 기록
  - 코로나19 백신 도입 확대 및 정부의 개인 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소매판매는 2021년 3월 전월대비 9.7% 상승
  - 소비자신뢰지수 또한 2021년 4월 121.7p로 크게 상승하며 미국 내 본격적인 코로나19 대확산 직전 시기인 2020년 3월(118.8p) 수준을 상회

< 경제성장률과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고용 및 소비지표 >

자료 : Bloomberg.

- **제조업 및 비제조업 경기 모두 확장세를 지속하며 민간투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
  - 제조업 PMI는 2020년 4월 41.5p까지 하락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 2021년 3월 64.7p, 4월 60.7p를 기록
  - 비제조업 PMI는 2020년 4월 41.6p까지 하락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 2021년 4월 62.7p로 경기 확장 기준점인 50p를 크게 상회
  - 민간기업의 투자 수요를 반영하는 비국방자본재수주(항공제외)는 2021년 3월 전년동월대비 11.6% 증가

- **강력한 경기부양책 및 코로나19 백신 도입 등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며 높은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향후 경기 향방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는 2020년 4월 96.8p로 급락 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21년 3월 111.6p 기록
  - 뉴욕 연은의 향후 12개월 경기침체 확률은 2021년 4월 19.5%로 추세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2021년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바탕으로 빠른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경기 개선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및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 전환 시기 관련 이슈 등이 부각될 전망

< 산업경기 및 투자선행지표 >

<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침체 확률 >

자료 : US Census, Bloomberg.
주 : ISM은 공급자관리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자료 : Bloomberg, The Conference Board.

② 유로존 : 경기 회복 지연

○ 유로존은 경기 침체가 지속 중이나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표 등이 개선되면서 향후 경기 회복 국면 진입 가능성을 시사

- 유로존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지속하며 경기 침체가 지속 중이나, 하락폭은 축소

· 유로존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20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 추세를 지속하면서 경기 침체 국면을 지속

· 다만, 경제성장률이 가장 크게 하락했던 2020년 2분기(-14.6%) 이후 2021년 1분기 -1.8%까지 하락폭이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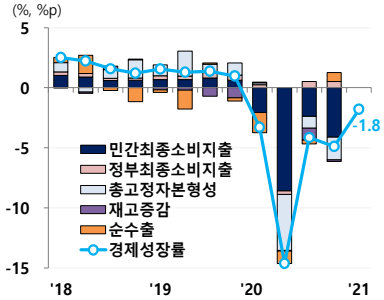
- 주요국 성장률 : 프랑스 회복 국면 진입, 유럽 주요국에서 경기 침체 지속

· 프랑스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은 2021년 1분기 1.5%로 플러스 반등하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

· 그러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타 유럽 주요국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며 경기 침체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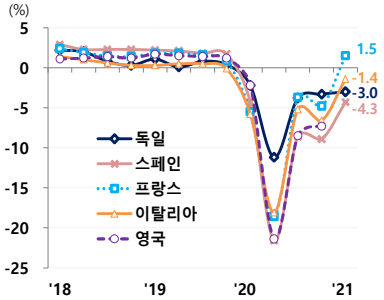
· 다만 유럽 주요국 성장률 하락폭은 축소되고 있어 향후 유로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Eurostat.
주1) 유로존 19개국 기준.
2) 전년동기대비.

< 유럽 주요국 경제성장률 >



자료 : Eurostat.
주 : 전년동기대비.

- 물가 및 고용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1%대를 회복하고, 실업률 또한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며 개선되는 모습

·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크게 악화되었던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들어 플러스 반등한 이후 3월 1.5%로 상승폭이 확대

· 유로존 실업률 또한 2020년 9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개선

·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따른 수요 회복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실업률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

- 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 모두 상승 추세로 유로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 유로존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0년 4월 저점 이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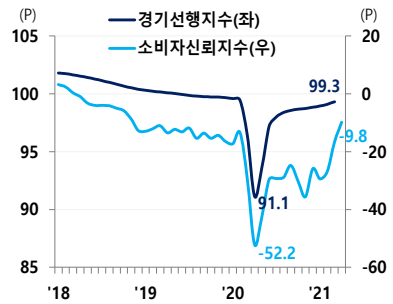
· 향후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 또한 2020년 4월 이후 회복 추세를 지속하여 2021년 3월 마이너스 -9.8p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

·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및 백신 접종 지연 등이 경기 개선세를 제한할 가능성도 상존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 >

자료 : Eurostat.
주1) 유로존 19개국 기준.
2)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 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



자료 : OECD, European Commission.
주1) 유로존 19개국 기준.
2) 소비자신뢰지수는 향후 12개월간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를 이용, 0보다 크면 긍정적, 0보다 작으면 부정적.

③ 일본 : 경기 재침체 우려 상존

○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

- 일본 경제성장률은 2020년 2분기 코로나19 충격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1년 2분기 재침체 가능성 상존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1~2분기 각각 전년동기 대비 -2.0%, -10.3%를 기록

· 2020년 3분기부터 GDP 감소폭이 축소되며 경기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1년 1분기 이후 긴급사태 발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재침체 가능성도 상존

- 2020년 코로나 확산 이후 급락했던 소매판매증가율과 소비자태도지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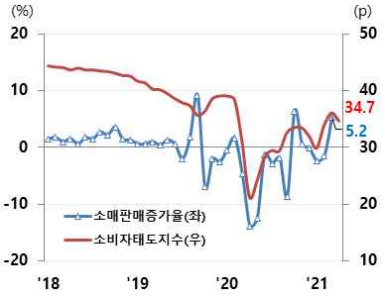
· 2020년 2분기 코로나19 충격으로 소매판매증가율이 4월 -13.9%를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폭이 축소되어 10월 이후 등락을 반복함

· 소비자태도지수는 2020년 4월 21.3p를 기록한 이후 2021년 4월 34.7p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일본 내각부.
주 1) 전년동기비.
2) 2021년 1분기는 IB 전망치.

< 소매판매 및 소비자태도지수 >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주 : 소비자태도지수는 2인 이상 세대, 계절조정계열 기준.

- 실물 경제의 실적 및 심리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

· 2020년 4~7월 코로나19 영향으로 10%대의 감소세를 보였던 산업생산은 이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개선세가 부진함

· 코로나 충격 이후 10~20%대의 감소세를 보인 상품수출 증가율도 2020년 12월 플러스로 전환하였으나, 2021년 2월 -4.0%로 다시 감소함

· 매출액과 영업이익, 설비투자 등 법인기업 실적이 2020년 4분기부터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함

· 제조업PMI는 2020년 5월 38.4p를 기록한 이후 2021년 4월 53.6p로 개선되었고 서비스업PMI도 같은 기간 반등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함

- 2020년부터 노동시장이 점차 악화되고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도 기준선을 하회하여 실물경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부진

· 코로나19로 3.1%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2021년 3월 2.6%로 개선되었으나, 유효구인배율은 3월 1.1배로 부진이 지속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대규모 부양책에도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됨

· 경기선행지수는 2020년 5월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2021년 2월 98.7p로 기준치를 소폭 하회함

< 전산업생산 및 수출 >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재무부.
주 : 수출은 국제수지상 상품수출 기준.

< 소비자물가 및 경기선행지수 >

자료 : 일본 총무성, 내각부.

④ 중국 : 경기 회복세 가속

○ 중국 경제는 최근 빠른 회복세로 진입하였고 코로나19 충격에서도 벗어나고 있으나,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지속되는 모습

- 2021년 1분기 중국 경제는 소비 부문 개선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빠른 반등세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하여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회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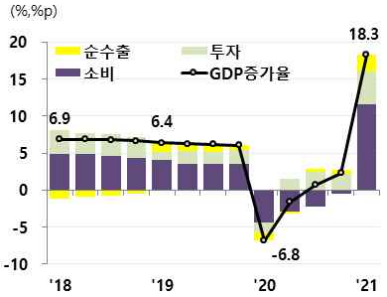
· 특히, 경제성장률 반등에는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소비 부분 확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소매판매 증가율은 2020년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2021년 3월 34.2%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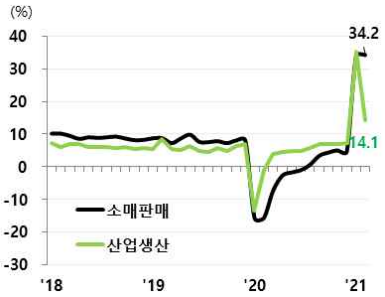
· 산업생산 증가율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1~2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플러스로 전환했으며, 2021년 1~2월 35.1%, 3월 14.1%를 기록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함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國家統計局.
주 : 증가율 및 기여도는 분기별 누적기준임.

<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증가율 >



자료 : 國家統計局.

- 고정자산투자와 수출도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 정부 주도의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고 민간 부문에서도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2021년 1~3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20~30%대를 기록함

· 또한 2020년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수출이 2021년 1월부터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함

· 수출에 크게 기여한 부문은 가전을 비롯한 기계, 자동차 등 하이테크 제조업이었음

- 한편, 경기선행지수와 제조업PMI 등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개선세를 지속

· 중국의 OECD경기선행지수는 2020년 2월 84.3p에서 2021년 3월 102.5p로 회복세를 지속함

· 또한 제조업PMI도 같은 기간 35.7p에서 51.9p로 개선되어 향후 중국의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임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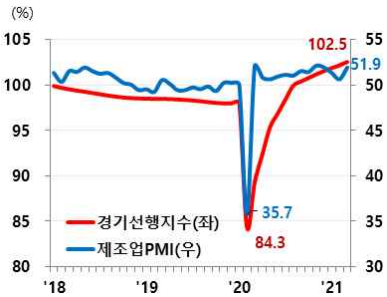
- 다만, 중국의 기업 부채, 그림자 금융 등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기업부채 GDP 대비 규모는 2020년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자 금융 규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투자 및 수출 증가율 >

자료 : 國家統計局, 海關總署.
주 : 투자 및 수출 증가율은 누적기준.

< 경기선행지수 및 제조업 PMI >



자료 : OECD, 國家統計局.

⑤ 인도 : 경기 불확실성 확대

○ 경기부양책 도입 및 봉쇄조치 완화로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보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

- 인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20년 4분기 0.4%로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20년 1분기(3.0%) 이후 3분기만에 플러스 전환

·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력한 봉쇄조치로 2020년 2분기 경제성장률(-24.4%)의 급감 이후 봉쇄조치 완화 등으로 4분기 0.4% 성장

· 4분기 민간소비지출(-2.4%)과 수출(-4.6%), 수입(-4.6%)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2분기 대비 감소폭은 축소

- 민간소비 및 생산 경기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악화되며 경기 개선이 지연될 우려

· 민간소비 부문은 정부의 봉쇄조치 완화 이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 산업생산 증가율 또한 2020년 4월 -57.3%로 최저치 이후 봉쇄조치 완화와 함께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2021년 2월 기준 -3.6%로 역성장 지속

· 특히 2021년 3월 이후 인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 전국적 봉쇄조치 등이 재논의되며 경기 개선의 지연 가능성이 대두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Bloomberg.
주 1) 전년동기비.
2) 2021년 1분기는 IB 전망치.

< 민간소비 및 산업생산 증가율 >

자료 : Bloomberg.
주1) 전년동기대비.
2) 민간소비는 분기별, 산업생산은 월별.

⑥ 베트남 : 견조한 성장 지속

○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경기 회복세가 강화

- 베트남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강화

· 베트남 경제성장률(누계, 전년동기대비)은 2020년 2분기 1.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분기 4.5%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경기 회복세가 강화

·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전산업에서 회복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 및 건설업의 회복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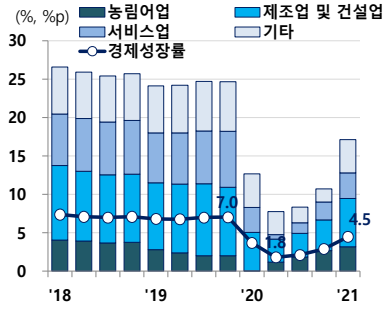
· 반면 서비스업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수요가 회복되면서 소매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생산 또한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

·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4월 -4.3%까지 하락했던 소매판매 증가율(누계, 전년동기비)은 2020년 9월 플러스 반등한 후 최근 10.0%까지 상승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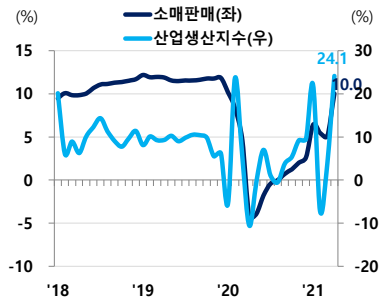
· 산업생산 증가율(누계, 전년동기비) 또한 2021년 4월 24.1%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

< 산업별 경제성장률 >



자료 : CEIC.
주1)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누계기준.
2) 기타는 순생산물세.

<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 CEIC.
주 : 전년동기대비, 누계기준.

3. 시사점

○ 최근 주요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보급 격차에 의한 경기 회복세 차별화, 인플레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성 부상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할 대응이 필요함

첫째,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세계 경제 및 글로벌 교역 개선세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투자와 고용에 있어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하반기 경기부양정책 방향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두어 민간 섹터가 경제 전반의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촉진

- 특히, 가장 시급한 사안은 고용시장에서 청년층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장년층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기 회복의 지속가능성을 확충

- 또한 경기 회복 효과의 부분별 차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 규모와 방향에 대한 적절성 및 적시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둘째, 국가별 경기 회복 디커플링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하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은 물론 갑작스러운 글로벌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향후 코로나19 백신 보급의 정도, 금융통화 및 재정 정책의 여력 등에 따라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경기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

- 특히, 상품 및 서비스 수요 개선의 차별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경기 개선세의 온도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외수 부문의 활력 유지 및 국내 경기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별 맞춤 수출 전략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외수 부문에서의 차별적인 리스크 관리도 병행

셋째, 글로벌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의 국내 전이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

-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재확산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에 사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 정부는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통상 관련 인력 확충 등 통상 전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함
  - 기업은 제품에 대한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수출 대상국의 무역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
  - 특히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에 대한 현지 언론과 소비자의 동향을 살피고, 현지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십 강화 등과 같은 피해 최소화 전략도 마련되어야 함

- 세계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 심화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기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도 강구
  -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단기외채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융기관의 외환 유동성 관리 강화 등 단계별 대응책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시급함
· 또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 등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한편, 국내 경제의 거시안정성 유지와 함께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
· 기축 통화국과의 상시적 통화스왑 확대 등을 통한 외환시장 건전성 제고해야 함
· 또한 국내외 유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재정비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함 HRI

오준범 연구위원 (2072-6247, jboh19@hri.co.kr)
신유란 선임연구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
류승희 연 구 원 (2072-6217, shryu@hri.co.kr)